

<2015.11.16. ~ 2015.11.17.>

## **奎北日報**

2015년 11월 17일 화요일  
007면 자치시대

### **고창군, 생물권보전지역 용역 보고회**

고창군은 16일 ‘고창생물권보전지역 브랜드 전략 수립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군청 회의실에서 개최했다.

이날 박우정 군수와 실과소장 등 관계자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고창생물권보전지역 브랜드 정립과 성공적 운영, 관리 전략 수립, 효과적인 홍보와 활성화 전략 등이 보고됐다.

이번 보고회는 지역에서 생산되는 우수 농·수·축·임산물 및 가공품에 대해 고창생물권보전지역 브랜드를 활용하고 이를 통해 주민 소득 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마련됐다.

박우정 군수는 “고창생물권보전지역에서 생산된 우수한 농특산물 및 가공식품 등의 대외적인 신용도 및 이미지 관리와 그 전략을 체계적으로 세워 고창생물권보전지역 브랜드사업을 해 나가야 한다”며 “우리군 농산물이 제값을 받고, 군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브랜드 관리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군은 23개류(곡물, 과실, 가공품, 서비스업 등)에 대해 특허청에 ‘고창생물권보전지역’ 상표등록을 마쳤다.      고창=김성규 기자

## “고창생물권보전지역 브랜드 알리자”

### 郡, 활성화 전략 수립 적극 활용

고창군(군수 박우정)은 고창생물권보전지역 브랜드를 전분야에 걸쳐 활용할 수 있도록 효과적인 브랜드 활성화 전략을 수립, 적극적으로 활용해 나가기로 했다.

이에따라 군은 16일 군청 회의실에서 박우정 군수와 각 실과소장 등 관계자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고창생물권보전지역 브랜드 정립과 성공적 브랜드 운영 및 관리 전략 수립, 효과적인 홍보와 활성화 전략 수립 등을 위한 브랜드 활용 전략 수립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가졌다.

이날 보고회에서 지역에서 생산되는 우수 농·수·축·임산물 및 가공품에 생물권보전지역 브랜드를 활용할 수 있는 여러 방안들이 제시돼 주민 소득 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했다.

박우정 고창군수는 “고창생물권보전지역에서 생산된 우수한 농특산물 및 가공식품 등의 대외적인 신용도 및 이미지 관리와 그 전략을 체계적으로 세워 고창생물권보전지역 브랜드사업을 해 나가야 한다”며 “우리 군 농산물이 제값을 받고 판매될 수 있도록 브랜드 관리에 만전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고창=남궁경종 기자



## 고창 생물권보전지역 브랜드화 추진

### 23개 제품 상표등록 등 사전 정지작업 마무리

고창군이 지역에서 생산되는 우수 농·수·축·임산물 및 가공품에 대해 고창생물권보전지역 브랜드를 활용하고 이를 통해 주민 소득 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고창생물권보전지역 브랜드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따라 16일 군청 2층 회의실에서 박우정 군수를 비롯 각 실과소장 등 관계자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략수립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하고 고창생물권보전지역 브랜드 정립과 성공적 브랜드 운영 및 관리

전략 수립, 효과적인 홍보와 활성화 전략 수립 등에 머리를 맞댔다.

이 자리에서 박우정 군수는 “고창생물권보전지역에서 생산된 우수한 농특산물과 가공식품 등에 대해 대외적인 신용도를 높이고 이미지 관리를 위해 그 전략을 체계적으로 세워 나가야 한다”며 “우리군 농산물이 제값 받고 군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브랜드 관리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말했다.

한편 고창군은 지역특산물과 완제품 등 23개류(곡물, 과일, 가공품, 서비스업 등)에 대해 고창생물권보전지역 상표를 특허청에 등록하는 등 고창생물권 브랜드화사업 추진을 위해 사전 정지작업을 이미 마친 상태다.

/고창=신동일기자·sdl@

## 고창, 생물권보전지역 브랜드 운영 관리 박차

고창군(군수 박우정)이 '고창생물권보전지역 브랜드 전략 수립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16일 군청 회의실에서 열린 보고회는 박우정 군수와 각 실과소장 등 관계자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고창생물권보전지역 브랜드 정립과 성공적 브랜드 운영 및 관리 전략 수립, 효과적인 홍보와 활성화 전략 수립 등이 보고 됐다. 이번 보고회는 지역에서 생산되는 우수 농·수·축·임산물 및 가공품에 대해 고창생물권보전지역 브랜드를 활용하고 이를 통해 주민 소득 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마련됐다.

박우정 고창군수는 "고창생물권보전지역에서 생산된 우수한 농특산물 및 가공식품 등의 대외적인 신용도 및 이미지 관리와 그 전략을 체계적으로 세워 고창생물권보전지역 브랜드사업을 해 나가야 한다"며 "우리군 농산물이 제값을 받고, 군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브랜드 관리에 만전을 다해 줄 것과 청정고창을 만들어 갈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군은 '고창생물권보전지역' 상표등록을 23개류(곡물, 과일, 가공품, 서비스업 등)에 대해 특허청에 등록을 마쳤다. /고창=박용관 기자(sc0747@)



## ‘고창생물권보전지역 브랜드 전략 연구용역’ 최종보고회

### 우수 농·수·축산물 활용

### 주민소득 증대 위해 마련

고창군(군수 박우정)은 지난 16일 군청 회의실에서 ‘고창생물권보전지역 브랜드 전략 수립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열린 보고회는 박우정 군수와 각 실과소장 등 관계자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고창생물권보전지역 브랜드 정립과 성공적 브랜드 운영 및

관리 전략 수립, 효과적인 홍보와 활성화 전략 수립 등이 보고 됐다.

이번 보고회는 지역에서 생산되는 우수 농·수·축·임산물 및 가공품에 대해 고창생물권보전지역 브랜드를 활용하고 이를 통해 주민 소득 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마련됐다.

박우정 고창군수는 “고창생물권보전지역에서 생산된 우수한 농특산물 및 가공식품 등의 대외적인 신용도 및 이미지 관리와 그 전략을 체계적

으로 세워 고창생물권보전지역 브랜드사업을 해 나가야 한다”며 “우리군 농산물이 제값을 받고, 군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브랜드 관리에 만전을 다해 줄 것과 청정고창을 만들어 갈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군은 ‘고창생물권보전지역’ 상표등록을 23개류(곡물, 과일, 가공품, 서비스업 등)에 대해 특허청에 등록을 마쳤다.

/고창=김준원기자 jwkim@

## 전민일보

2015년 11월 17일 화요일  
008면 지역

## 고창 생물권보전지역 브랜드 전략 용역 보고회

고창군(군수 박우정)이 ‘고창생물권보전지역 브랜드 전략 수립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16일 군청 회의실에서 열린 보고회는 박우정 군수와 각 실과소장 등 관계자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고창생물권보전지역 브랜드 정립과 성공적 브랜드 운영 및 관리 전략 수립, 효과적인 홍보와 활성화 전략 수립 등이 보고 됐다.

이번 보고회는 지역에서 생산되는 우수 농·수·축·임산물 및 가공품에 대해 고창생물권보전지역 브랜드를 활용하고 이를 통해 주민 소득 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마련됐다.

박우정 고창군수는 “고창생물권보전지역에서 생산된 우수한 농특산물 및 가공식품 등의 대외적인 신용도 및 이미지 관리와 그 전략을 체계적으로 세워 고창생물권보전지역 브랜드사업을 해 나가야 한다”며 “우리군 농산물이 제값을 받고, 군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브랜드 관리에 만전을 다해 줄 것과 청정고창을 만들어 갈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군은 ‘고창생물권보전지역’ 상표등록을 23개류(곡물, 과일, 가공품, 서비스업 등)에 대해 특허청에 등록을 마쳤다. 고창=임동갑기자

# 고창 생물권보전지역 브랜드화 밑그림

## 전략수립 연구용역 최종보고회서 체계적 운영관리 논의

고창군이 '고창생물권보전지역 브랜드 전략 수립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16일 군청 회의실에서 열린 보고회는 박우정 군수와 각 실과소장 등 관계자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고창생물권보전지역 브랜드 정립과 성공적 브랜드 운영 및 관리 전략 수립, 효과적인 홍보와 활성화 전략 수립 등이 보고 됐다.

이번 보고회는 지역에서 생산되는 우수 농·수·축·임산물 및 가공품에 대해 고창생물권보전지역 브랜드를 활용하고 이를 통해 주민 소득 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마련됐다.

박우정 고창군수는 "고창생물권보전지역에서 생산된 우수한 농특산물 및 가공식품 등의 대외적인 신용도 및 이미지 관리와 그 전략을 체계적으로 세워 고창생물권보전지역 브랜드사업을 해 나가야 한다"며 "우리 군 농산물이 제값을 받고 군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브랜드 관리에 만전을 다해 줄 것과 청정고창을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군은 '고창생물권보전지역' 상표등록을 23개류(곡물, 과일, 가공품, 서비스업 등)에 대해 특허청에 등록을 마쳤다.

신익희기자/syhee5311@hanmail.net



2015년 11월 17일 화요일  
010면 지역

## 고창군, 생물권보전지역 브랜드 운영 관리 박차

고창군(군수 박우정)이 '고창생물권보전지역 브랜드 전략 수립 연구용역' 최종 보고회를 개최했다.

16일 군청 회의실에서 열린 보고회는 박우정 군수와 각 실과소장 등 관계자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고창생물권보전지역 브랜드 정립과 성공적 브랜드 운영 및 관리 전략 수립, 효과적인 홍보와 활성화 전략 수립 등이 보고 됐다.

이번 보고회는 지역에서 생산되는 우수 농·수·축·임산물 및 가공품에 대해 고창생물권보전지역 브랜드를 활용하고 이를 통해 주민 소득 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마련됐다.

박우정 고창군수는 “고창생물권보전 지역에서 생산된 우수한 농특산물 및 가공식품 등의 대외적인 신용도 및 이미지 관리와 그 전략을 체계적으로 세워 고창 생물권보전지역 브랜드사업을 해 나가야 한다”며 “우리군 농산물이 제값을 받고, 군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브랜드 관리에 만전을 다해 줄 것과 청정고창을 만들어 갈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군은 '고창생물권보전지역' 상표 등록을 23개류(곡물, 과일, 가공품, 서비스업 등)에 대해 특허청에 등록을 마쳤다.

/지방부

2015년 11월 17일 화요일  
010면 지역

## 고창군, 생물권보전지역 브랜드 운영 관리 박차

고창군(군수 박우정)이 '고창생물권보전지역 브랜드 전략 수립 연구용역' 최종 보고회를 개최했다.

16일 군청 회의실에서 열린 보고회는 박우정 군수와 각 실과소장 등 관계자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고창생물권보전지역 브랜드 정립과 성공적 브랜드 운영 및 관리 전략 수립, 효과적인 홍보와 활성화 전략 수립 등이 보고 됐다.

이번 보고회는 지역에서 생산되는 우수 농·수·축·임산물 및 가공품에 대해 고창생물권보전지역 브랜드를 활용하고 이를 통해 주민 소득 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마련됐다.

박우정 고창군수는 “고창생물권보전 지역에서 생산된 우수한 농특산물 및 가공식품 등의 대외적인 신용도 및 이미지 관리와 그 전략을 체계적으로 세워 고창 생물권보전지역 브랜드사업을 해 나가야 한다”며 “우리군 농산물이 제값을 받고, 군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브랜드 관리에 만전을 다해 줄 것과 청정고창을 만들어 갈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군은 '고창생물권보전지역' 상표 등록을 23개류(곡물, 과일, 가공품, 서비스업 등)에 대해 특허청에 등록을 마쳤다.

/지방부



## **전략매일**

2015년 11월 17일 화요일  
009면 지역

### **고창군, 생물권보전지역**

### **브랜드 운영 관리 '만전'**

고창군이 '고창생물권보전지역 브랜드 전략 수립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지난 16일 군청 회의실에서 열린 보고회는 박우정 군수와 각 실과소장 등 관계자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고창생물권보전지역 브랜드 정립과 성공적 브랜드 운영 및 관리 전략 수립, 효과적인 홍보와 활성화 전략 수립 등이 보고됐다.

이번 보고회는 지역에서 생산되는 우수 농·수·축·임산물 및 가공품에 대해 고창생물권보전지역 브랜드를 활용하고 이를 통해 주민 소득 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마련됐다.

박우정 군수는 “고창생물권보전지역에서 생산된 우수한 농특산물 및 가공식품 등의 대외적인 신용도 및 이미지 관리와 그 전략을 체계적으로 세워 고창생물권보전지역 브랜드 사업을 해 나가야 한다”며 “우리군 농산물이 제값을 받고, 군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브랜드 운영·관리에 만전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정관진 기자

## ‘체계적 전략으로 믿음가는 브랜드 육성’

고창군, 생물권보전지역 브랜드 전략 수립 용역 최종보고회

고창군은 ‘고창생물권보전지역 브랜드 전략 수립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16일 개최했다고 밝혔다.

군청 회의실에서 열린 이날 보고회는 박우정 군수와 각 실과소장 등 관계자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고창생물권보전지역 브랜드 정립과 성공적 브랜드 운영 및 관리 전략 수립, 효과적인 홍보와 활성화 전략 수립 등을 논의했다.

보고회는 지역에서 생산되는 우수 농·수·축·임산물 및 가공품에 대해 고창생물권보전지역 브랜드를 활용하고 이를 통해 주민 소득 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마련됐다.

박우정 고창 군수는 “고창생물권보전 지역에서 생산된 우수한 농 특산물 및 가공식품 등의 대외적인 신용도 및 이미지 관리와 그 전략을 체계적으로 세워 고창 생물권보전지역 브랜드사업을 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군수는 또 “우리군 농산물이 제값을 받고, 군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브랜드 관리에 만전을 다해 줄 것과 청정고창을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고창=김태완 기자



## '생물권보전지역'이 뜬다...고창군 브랜드화 추진

(고창=연합뉴스) 전성옥 기자 = 행정구역 전체가 유네스코의 '생물권보전지역'으로 지정된 전북 고창군이 이를 소득으로 연결하기 위해 브랜드화에 나섰다.

고창군은 16일 군청 회의실에서 '고창생물권보전지역 브랜드 전략 수립 연구용역' 보고회를 하고 생물권보전지역이 주민소득과 연계될 수 있도록 이를 브랜드화하고 '청정 고창'의 이미지 홍보에 박차를 가하기로 했다.

고창군은 이 지역에서 생산되는 우수 농·수·축·임산물과 가공품에 대해 '고창생물권보전지역'이란 브랜드를 활용할 방침이다.

이에 앞서 고창군은 이 지역에서 생산된 23개 곡물과 과일, 가공품에 대해 특허청에 '고창 생물권보전지역'이란 상표 등록을 마친 상태다.

고창군은 생물권보전지역이 주민소득 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브랜드를 관리하고 홍보해 나갈 계획이다.

'생물권보전지역'은 1968년 유네스코의 '생물자원의 보전과 합리적 이용'에 관한 국제회의 개최 후 생긴 용어다.

유네스코는 보전의 가치가 있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국제적으로 인정된 육상과 연안 생태계를 '생물권보전지역'으로 지정해오고 있다.

## 고창군, 생물권보전지역 브랜드 전략 마련



【고창=뉴스시스】 김중효 기자 = 행정구역 전체가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으로 지정된 전북 고창군이 생물권보전지역이라는 브랜드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전략을 마련에 나섰다.

군은 16일 군청에서 간부공무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고창생물권보전지역 브랜드 전략 수립 연구용역' 최종보고회가 열렸다고 이날 밝혔다.

이번 용역은 지역에서 생산되는 우수 농·수·축·임산물 및 가공품에 대해 고창생물권보전지역 브랜드를 활용하고 이를 통해 주민의 소득 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방안을 마련키 위해 추진됐다.

보고회에서는 고창생물권보전지역 브랜드 정립과 성공적 브랜드 운영 및 관리 전략 수립, 효과적인 홍보와 활성화 전략 수립 등이 보고됐다.

특히 브랜드 라벨링 사업과 관련해 브랜드 사용에 대한 기준과 활용 및 응용 방법 등이 자세히 소개됐다.

박우정 군수는 "고창생물권보전지역 브랜드사업은 우수한 농특산물과 가공식품 등에 대해 대외적 신용도와 이미지를 향상시키는 체계적인 전략을 세워 추진해야 한다"며 "군민에게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는 브랜드 관리에 만전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고창군은 특허청을 통해 곡물과 과일, 가공품, 서비스업 등 23개 분야의 '고창생물권보전지역' 상표등록을 마쳤다.



## 고창생물권보전지역 브랜드 활용방안 모색



전북 고창군(군수 박우정)이 16일 지역 농특산물 판매 활성화를 위한 ‘고창생물권보전지역 (Biosphere Reserve · 이하 BR) 브랜드 전략 수립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 News1

16일 고창 생물권 보전지역 브랜드 전략 수립 용역 최종보고회

(고창=뉴스1) 박제철 기자 = "생물권 보전지역의 이미지를 적극 활용한 농특산물 마케팅 추진해야."

전북 고창군(군수 박우정)이 16일 지역 농특산물 판매 활성화를 위한 ‘고창생물권보전지역 (Biosphere Reserve · 이하 BR) 브랜드 전략 수립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군청 회의실에서 열린 이날 보고회는 박우정 군수와 각 실과소장 등 관계자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고창생물권보전지역 브랜드 정립과 성공적 브랜드 운영 및 관리 전략 수립, 효과적인 홍보와 활성화 전략 수립 등이 보고 됐다.

이번 보고회는 지역에서 생산되는 우수 농·수·축·임산물 및 가공품에 대해 고창생물권보전지역 브랜드를 활용하고 이를 통해 주민 소득 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마련됐다.

이날 보고회에서는 참가자들은 "고창생물권보전지역에서 생산된 우수한 농특산물 및 가공식품 등의 대외적인 신용도 및 이미지 관리와 그 전략을 체계적으로 세워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또 "고창의 농산물이 제값을 받고, 군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브랜드 관리가 선행되어야 한다"며 "이를 위해서는 보다 체계적인 고창생물권보전지역 브랜드사업 추진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박우정 고창군수는 "보고회에서 논의된 것을 바탕으로 청정 고창지역 농산물의 브랜드화를 위해 각 부서별로 대책을 마련하고 나아가 청정고창을 만들어 갈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군은 현재 곡물, 과일, 가공품, 서비스업 등 총 23종이 ‘고창생물권보전지역’ 상표로 특허청에 등록돼 있다.  
jcpark@

[© 뉴스1코리아(),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고창군, '생물권보전지역 브랜드' 최종보고회 개최



(사진= 고창군 제공)

[전북=동양뉴스통신]조준수 기자= 전북 고창군(군수 박우정)은 16일 군청 회의실에서 ‘고창생물권보전지역 브랜드 전략 수립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보고회는 박우정 군수와 각 실과소장 등 관계자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고창생물권보전지역 브랜드 정립과 성공적 브랜드 운영 및 관리 전략 수립, 효과적인 홍보와 활성화 전략 수립 등이 보고 됐다.

또 지역에서 생산되는 우수 농·수·축·임산물 및 가공품에 대해 ‘고창생물권보전지역 브랜드’를 활용하고 이를 통해 주민 소득 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마련됐다.

박우정 군수는 “고창생물권보전지역에서 생산된 우수한 농특산물 및 가공식품 등의 대외적인 신용도 및 이미지 관리와 그 전략을 체계적으로 세워 고창생물권보전지역 브랜드사업을 해 나가야 한다”며 “우리군 농산물이 제값을 받고, 군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브랜드 관리에 만전을 다해 줄 것과 청정고창을 만들어 갈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말했다.

조준수 dynewsk1@naver.com

<저작권자 © 동양뉴스통신,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생물권보전지역 브랜드 운영 관리 박차

전북 고창군(군수 박우정)이 ‘고창생물권보전지역 브랜드 전략 수립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16일 오전 군청 회의실에서 개최했다.

박우정 군수와 실과소장 등 관계자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보고회에서는 고창생물권보전지역 브랜드 정립과 성공적인 브랜드 운영 및 관리 전략, 효과적인 홍보와 활성화 전략 등이 집중적으로 논의됐다.

이번 보고회는 지역에서 생산되는 우수 농수축산물과 임산물 등 가공품에 대해 고창생물권보전지역 브랜드를 활용해 주민 소득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박우정 군수는 “고창생물권보전지역에서 생산된 우수한 농특산물 및 가공식품 등의 이미지 관리전략을 체계적으로 세워 고창생물권보전지역 브랜드사업을 펼쳐나가야 한다”면서 “고창농산물이 제 값을 받고, 군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브랜드 관리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고창군은 ‘고창생물권보전지역’ 상표등록을 23개류(곡물, 과일, 가공품, 서비스업 등)로 늘려 특허청에 등록을 마친 것으로 전해졌다.



## 고창군, BR 브랜드 연구용역 최종보고회 개최



(사진 = 고창군)

(전북=NSP통신) 김남수 기자 = 전북 고창군(군수 박우정)이 16일 ‘고창생물권보전지역(BR) 브랜드 전략 수립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보고회는 박우정 군수와 각 실과소장 등 관계자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고창생물권보전지역 브랜드 정립과 성공적 브랜드 운영 및 관리 전략 수립, 효과적인 홍보와 활성화 전략 수립 등이 보고됐다.

군은 지역에서 생산되는 우수 농·수·축·임산물 및 가공품에 대해 고창생물권보전지역 브랜드를 활용하고 이를 통해 주민 소득 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이번 보고회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박우정 군수는 “고창생물권보전지역에서 생산된 우수한 농특산물 및 가공식품 등의 대외적인 신용도 및 이미지 관리와 그 전략을 체계적으로 세워 고창생물권보전지역 브랜드사업을 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군 농산물이 제값을 받고 군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브랜드 관리에 만전을 기해 줄 것과 청정고창을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고창군은 23개류(곡물, 과일, 가공품, 서비스업 등)에 대해 ‘고창생물권보전지역’ 특허청 상표등록을 마쳤다.

NSP통신/NSP TV 김남수 기자, nspns@nspna.com

저작권자©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 · NSP TV.